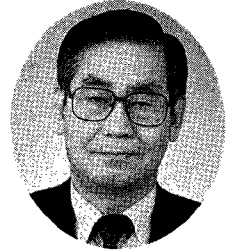


原子力の 平和的 利用을 增進

本稿는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 35차 IAEA
정기총회에서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金鎮炫 과학기술처장관이 기조강연한
내용이다.



金 鎮 炫
〈科學技術處 長官〉

의장님,

본인은 IAEA총회의 이 중요한 회의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우리 대표단을 대신해 귀하가 이번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된데 대해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본인은 이 기구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예멘공화국이 가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대표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신규 가입하고 프랑스가 NPT 가입을 결정한데 이어 중국도 같은 의사를 표명하는데 대해 이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Hans Blix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이 지난 12개월간 보여준 탁월한 업적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국이 북한과 더불어 유엔에 가입했음을 알려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거 40년간 분단상태에 있던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공존의 새로운 양식을 지양하고 있는 온 국제사회에 있어 특별한 날입니다. UN에 남·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부과될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유엔헌장 제4조에 명시된 평화애호국가로서의 국제법상의 모든 의무의 이행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의 창설멤버이고 NPT에 가입해 IAEA 핵안전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확산금지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원자력평화이용정책을 재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지난주 열린 IAEA의 9월 이사회에서 IAEA와 북한간의 안전조치협정이 승인된데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회의 승인은 6년전에 NPT에 가입한 북한으로 하여금 의무조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데 큰 진전을 보인 것입니다. 북한은 NPT 의무조항을 이행하는데 이례적으로 늦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만 본인은 북한이 지난 6월 이사회에서의 약속을 이행한데 대해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주 이사회에서 통과된 협정문안에 대한 서명과 인준을 회피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NPT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NPT 의무조항 이행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과거와는 달리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북한의 협정체결 촉구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전세계의 압도적인 대다수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앞서 말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가까운 시일내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켜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강제사찰을 초래할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단은 북한에 대해 의무조항을 자진해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협정문안에 즉시 서명하고 이를 지체없이 인준해서 NPT 의무조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NPT 안전조치협정 위반사항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라크 사태는 온 국제사회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같은 NPT 안전조치협정 위반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IAEA가 이라크 사태를 다루고 있는데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AEA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687호에 따라 이라크에 대해 특별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IAEA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지금까지 IAEA 사무국이 부여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대표단의 생각으로는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의 사명을 띤 UN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이용해 IAEA도 자체의 안전조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어제 아침 Hans Blix사무총장이 제안한 조치를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 IAEA의 담당부서의 상세한 절차가 마련돼 IAEA의 특별사찰체제가 발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IAEA의 특별사찰체제는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연관을 맺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대표단은 원자력 안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TMI나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고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엔 있어서의 최대한의 관심과 주의를 불러



일으키고 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지난 9월초 빈에서 열린 “원자력발전 안전성에 관한 국제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문제와 관련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IAEA 주관하에 보다 조화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지난주 빈에서 열린 “제2차 원자력에 관한 IAEA 홍보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모임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회원국, 특히 원자력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원자력 기술협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전력량의 거의 50%를 원자력발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국은 원자력과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소의 표준화, 개량형 원자로의 연구개발, 운전안전성의 개선,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입니다.

한국은 현재 컴퓨터를 이용한 원자력안전성 분석에 관한 개도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원자력발전의 타당성 검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제4차 RCA 훈련과정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자력발전소 운전원 훈련계획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지역간의 협력이 아시아와 태평양연안 국가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한 이 지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원자력협력의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북한이 NPT 안전협정 하에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는 평화적 원자력기술과 경험,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전에 관한 것을 북한측에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단은 오스트리아 정부와 국민들이 우리들에게 베푼 호의와 우정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